

회원가입 문의 02-766-5627,8 후원 008-01-0567-507(국민) 일시후원 #2540-1989(1통 3천원)

- 수신 : 언론사 경제부·정치부·사회부·시민사회담당
- 발신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김현동 본부장)
- 문의 : 부동산건설개혁본부(김성달 국장, 장성현 간사, 02-3673-2146)
- 시행 : 2020. 7. 2.(총 7매)

서울시 의회 110명 의원 중 31%가 다주택자

상위 10명 평균 16건, 52.8억 보유, 다주택자 상위 5명 81채 보유
다주택자, 부동산 부자 의원 상당수가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

서울시의회 의원 주택보유 실태 발표

일시 : 2020년 7월 2일(목) 오전 11시 00분

장소 :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순서 -

-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 취지 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 자료 발표 : 장성현 경실련 간사
- ◆ 입장 발표 : 김현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
- ◆ 질의 답변

*참여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축소신고와 부당한 재산증식, 부패근절을 위해 입법부인 국회, 행정부인 청와대·정부 부처의 고위직 공직자 재산공개 실태를 분석하여 알려왔다. 지난 18일에는 서울 25개 자치구청장의 재산분석을 통해 다주택자가 24%이고, 문재인 정부 이후 아파트 재산만 5억 47% 상승한 것을 알렸고, 서울 구청장들에게 투명한 재산공개에 동참 여부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했다.

이번에는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광역자치단체 광역의원의 재산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재산과 보유 부동산 현황을 분석했다. 첫 번째로 서울시의회다.

서울시의회 의원은 총 110명이다. 더불어민주당 102명, 미래통합당 6명, 기타 정당 2명이다. 서울시 의원 110명 중 부모·자녀 등 직계가족을 포함(고지거부 제외)해 부동산을 보유한 의원은 총 93명(84%)이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1주택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의원은 76명(69%)이다. 분석은 모두 본인이 신고한 가격을 적용했다. 부동산의 경우 대부분 공시지가(공시가격)로 신고해 실제 자산가치보다 축소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은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연립주택, 복합건물(주택+상가) 등을 포함했다. 이중 오피스텔은 사무용도, 주거용도를 구분 신고하지 않아 주택에 포함했다.

분석결과 110명의 평균재산은 12.6억으로 이중 부동산재산은 10.3억으로 80%를 차지했다. 본인 배우자 기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34명으로 전체의 31%나 된다. 때문에 상당 수 의원은 집값 상승으로 근로소득보다 많은 불로소득이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

[표] 3주택 이상 보유한 의원(본인, 배우자 기준)

구 분		소 속	주택		소재지			
			개수	신고가액 (억원)	강남 4구	비강남	수도권	기타
강대호	도시계획위	더불어 민주당	30	36.9	-	13채	17채	-
이정인	보건복지위		24	47.0	6채	3채	15채	-
성흠제	도시안전건설		11	9.6	-	11채	-	-
김경	교육위원회		5	28.5	1채	1채	-	3채
김혜련	보건복지위		4	11.2	1채	2채	-	1채
김기덕	환경수자원위		3	18.6	-	3채	-	-
김생환	환경수자원위		3	10.8	-	2채	1채	-
문장길	도시안전건설		3	10.0	-	1채	1채	1채
이석주	도시계획위	미래통합당	11	22.7	11채	-	-	-
9명	계		94	195.3	19	36	34	5
	평균		10.4	21.7	2.1	4.0	3.8	0.6

주1) 부동산재산은 신고가액 기준

일부 서울시 의원은 부동산 임대업자를 방불케 할 정도로 많은 주택을 갖고 있었다. 서울시 의원 다주택자 상위 5명은 81채를 소유해 인당 평균 16채, 상위 9명은 총 94채를 보유해 인당 평균 주택 수가 10채나 된다. 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시의원은 강대호 의원으로 서울시 중랑구와 경기도 가평군에 다세대 주택 21채와 연립주택 9채를 보유하고 있고, 신고액은 36.9억이었다. 보유 주택재산 가액이 가장 높은 이정인 의원은 신고액만 47억이다. 이 의원은 송파구에 아파트 1채와 다세대 4채를 보유하고, 도봉구에도 아파트 3채, 인천시 4채, 군포시 11채 등을 갖고 있다. 성흠제 의원은 은평구에 다세대 9채와 복합건물 2채 등 총 11채로 신고액은 9.6억이었다. 미래통합당 이석주 의원은 강남구 대치동과 논현동에 각각 아파트, 오피스텔 1채를 보유하고 있고, 강동구에 다세대 주택 9채를 갖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강대호 의원 등 다주택자 상위 9명 중 4명이 서울시 부동산·건설·도시개발 업무를 관리하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도시 안전건설위원회 등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이 의회에서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한 정책 대안을 할 수 있을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

서울시 의원 110명이 소유한 아파트·오피스텔 신고가액은 시세의 62%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오피스텔 총 95채의 시세는 730억으로 신고액 454억이고, 시세는 반영률이 62%로 나타났다. 토지 상가 등 다른 보유 부동산도 시세로 신고하지 않았다. 보유 부동산을 시세대로 신고한다면 재산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재산공개 시 건물 주소 등 세부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편법 증여 ▲차명 소유 ▲개발정보를 통한 사익편취 등 검증이 불가능했다.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을 공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축적을 감시하고 예방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깜깜이 재산공개’로 인해 법의 취지는 퇴색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다주택자들의 주택처분 서약을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다주택 처분이 이루어졌는지 공개하지 않아 알 수 없고 상당수가 주택을 처분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이라도 투기근절 의지가 있다면 국회의원 처분 약속을 이행하기 바란다. 광역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원 등도 다수가 민주당인 만큼 다주택 보유자들에게 주택 처분을 권고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부자, 다주택자들은 도시, 주택, 건설 등 부동산정책 관련 상임위에 배정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후 재산공개는 모두 시세대로 공개하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 이후 아파트값 등 집값 폭등을 조장한 정책결정자들 다수가 다주택자라면 이후 정책에서도 집값 안정책이 제시될 수 없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 및 투기여부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검증해야 한다. 또한, 다주택처분이행을 거부하는 고위공직자들은 즉각 교체하고 집값잡는 근본대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서울시 의회 의원 신고재산과 보유 부동산 분석]

1. 서울시 의원 신고재산 인당 평균 12.6억, 부동산 재산 10.3억으로 부동산이 80% 차지

[표1] 정당별 신고재산과 보유 부동산 현황(신고액 기준)

(단위 : 백만원, 개수)

구 분	의원수	신고재산 (A)	비중 (B/A)	부동산(B)			
				계	주택	비주택	토지
더불어민주당	102	112,025	79%	94,144 (5.2)	86,317 (2.1)	-3,432 (0.3)	6,430 (2.8)
미래통합당	6	24,352	89%	21,776 (7.3)	9,814 (2.8)	1,397 (0.7)	10,565 (3.8)
정의당	1	714	30%	216 (2.0)	216 (2.0)	-	-
민생당	1	443	56%	244 (5.0)	220 (1.0)	-5 (0.7)	29 (4.0)
계	전체	137,534	80%	111,380 (5.3)	96,567 (2.1)	-2,040 (0.3)	17,024 (2.9)
	평균	1,250	80%	1,032	745	131	156

대한민국 가구 평균 재산은 4.3억, 부동산재산은 3.0억
서울시의회 의원 재산은 국민평균치의 약 3배

주1) 대한민국 가구 평균 재산은 통계청 발표 2019년 가계금융복지 조사결과 자료

주2) 부동산 가액은 신고가액 기준

주3) 부동산 비주택 가액은 비주택 부동산 및 건물임대 채무 합산

서울시 의회 의원 110명이 공개한 재산은 1,391억 인당 12.5억으로 국민 평균 4.3억 대비 2.9배로 나타났다. 이들 의원이 보유한 부동산재산은 1,113억으로 전체 재산의 80%가 부동산이었다. 의원이 보유한 부동산은 583건으로 인당 평균 5.3건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주택이 2.1채, 상가·빌딩 0.3채, 토지 2.9필지다. 보유 부동산의 평균가액은 10.3억이다. 전체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이 89%이고 정의당은 30%였다. 이들이 신고한 부동산을 공시가격(시세의 62% 수준)이 아닌 시세로 전환하면 더 커질 것이다. 결국, 서울시 의원 역시 근로소득보다 부동산자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통해 재산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2. 본인배우자 기준 2주택 이상 보유자는 34명으로 전체의 31%

[표2] 정당별 주택 보유 현황(본인, 배우자)

(단위 : 명)

구분	의원수	무주택		유주택					
				합계		1주택		다주택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더불어민주당	102	33	32%	69	68%	38	38%	31	30%
미래통합당	6	1	17%	5	83%	2	33%	3	50%

정의당	1	-	0%	1	100%	1	100%	-	0%
민생당	1	-	0%	1	100%	1	100%	-	0%
계	110	34	31%	76	69%	42	38%	34	31%

본인과 배우자 기준으로 110명의 부동산 보유 실태를 살펴봤다. 전체의 69%인 76명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무주택자는 34명으로 31%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 무주택 비율 55%보다 1.8배 높다. 주택 소유자 76명 중 34명(31%)은 2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였다. 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 의원 6명 중 3명(50%)이 다주택자로 가장 높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102명 중 31명(30%)로 나타났다. 주택은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연립주택, 복합건물(주택+상가) 등을 포함했고, 이중 오피스텔은 사무용도, 주거용도를 구분신고하지 않아 모두 주택에 포함했다.

3.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은 평균 52.8억(16건) 보유, 최고는 미래통합당 성중기 시의원 98억

[표3] 서울시의회 보유 부동산 상위 10위(신고 기준)

(단위 : 억원)

순위	이름	소속	주택		비주택		토지		전체	
			가액	개수	가액	개수	가액	개수	가액	개수
1	성중기 교통위원회	미래통합당	32.0	1	-	-	66.1	12	98.1	13
2	최영주 문화체육위	더불어민주당	24.6	2	45.0	1			69.6	3
3	이정인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58.2	25	-	-			58.2	25
4	김진수 도시안전위	미래통합당	21.1	2	0.2	3	36.7	3	58.0	8
5	김경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28.5	5	25.4	5			53.9	10
6	이석주 도시계획위	미래통합당	22.7	11	16.4	1	0.3	2	39.5	14
7	김용연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30.8	4	6.3	2	0.8	3	37.9	9
8	안광석 문화체육위	더불어민주당	26.1	2	8.1	3	3.6	2	37.8	7
9	김상진 행정자치위	더불어민주당	37.5	1	-	-			37.5	1
10	김기덕 환경수자원	더불어민주당	25.7	4	11.3	1	0.2	61	37.3	66
	평균		30.7	6	16.1	2	18.0	14	52.8	16

주1) 부동산은 신고가액 기준

부동산재산 상위 10명은 평균 16건, 평균 가액 52.8억원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재산이 가장 많은 의원은 미래통합당 성중기 의원으로 본인, 배우자 명의로 강남구 신사동에 아파트 1채와 서초구 방배동 등지에 여러 개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2위는 더불어민주당 최영주 의원

으로 강남구 개포동과 송파구 잠전동에 아파트 2채와 빌딩 1채를 보유하고 있다. 3위는 더불어민주당 이정인 의원이다. 이 의원이 소유한 부동산은 모두 주택이다. 서울, 경기, 인천 인근에 아파트 21채와 다세대주택 4채를 갖고 있다. 미래통합당 의원은 전체 6명 중 3명이 상위 10위에 포함됐다.

이들 의원은 도시개발·재건축·택지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에도 포진해 있다. 부동산재산 1위인 성흥제 의원은 교통위원회에, 4위인 김진수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6위인 이석주 의원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배정돼 있다.

4. 다주택 상위 9명 94채(평균 10채) 보유, 9명중 4명이 부동산 관련 상임위 소속

[표4] 3주택 이상 보유한 의원(본인, 배우자 기준)

구 분		소속	주택		소유지			
			개수	가액 (억원)	강남 4구	비강남	수도권	기타
강대호	도시계획위	더불어민주당	30	36.9	-	13채	17채	-
이정인	보건복지위		24	47.0	6채	3채	15채	-
성흥제	도시안전건설		11	9.6	-	11채	-	-
김경	교육위원회		5	28.5	1채	1채	-	3채
김혜련	보건복지위		4	11.2	1채	2채	-	1채
김기덕	환경수자원위		3	18.6	-	3채	-	-
김생환	환경수자원위		3	10.8	-	2채	1채	-
문장길	도시안전건설		3	10.0	-	1채	1채	1채
이석주	도시계획위	미래통합당	11	22.7	11채	-	-	-
9명	계		94	195.3	19	36	34	5
	평균		10.4	21.7	2.1	4.0	3.8	0.6

주1) 부동산은 신고 가액 기준

서울시의회 의원 110명 중 **3주택 이상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9명**이다. 이들 9명이 보유한 주택은 94채, 평균 10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 부동산재산은 신고액 기준 195.3억이었다. 또 상위 5명이 보유한 주택은 81채로 인당 평균 16채를 보유하고 있고, 신고액은 144.7억 평균 29억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8명, 미래통합당 1명이다.

주택 30채를 보유한 더불어민주당 강대호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서울시 중랑구와 경기도 가평군에 다세대주택 21채와 연립주택 9채를 보유하고 있고, 신고액은 36.9억이었다. 보유 주택재산 가액이 가장 높은 이정인 의원은 신고액만 47억이다. 이 의원은 송파구에 아파트 1채와 다세대주택 4채를 보유하고, 도봉구에도 아파트 3채를 갖고 있다. 성흥제 의원은 은평구에 다세대주택 9채와 복합건물 2채 등 총 11채로 신고액은 9.6억이었다. 또 보유주택 상위 10명 중 강남권(강남4구)에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4명이었다. 미래통합당 이석주 의원은 강남구 대치동과 논현동에 각각 아파트, 오피스텔 1채를 보유하고 있고, 강동구에 다세대주택 9채를 갖고 있다.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 9명 중 4명이 부동산·건설 관련 위원회에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부동산·건설 의정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담당한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서울시의 도시계획국, 주택건축본부, 도시공간개선단, 지역발전본부,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개발기획단의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또 서울시의 도시계획 수립·조정, 지구단위계획 지정 운영 및 택지·도시개발과 주택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공공주택 및 임대주택 건설 공급, 주택재개발·재건축 추진, 주거환경 개선 등 예민한 부동산 문제를 모두 다룬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역시 서울시 건설 행정 분야를 감시 감독, 조정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30채의 주택을 소유한 더불어민주당 강대호 의원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은평구에 11채의 주택을 소유한 성흥제 의원과 3채의 주택을 소유한 문장길 의원은 도시건설안전위원회 소속이다. 미래통합당 의원 중 가장 많은 주택을 소유한 의원이자 강남 4구에만 11채의 집을 가진 이석주 의원 역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이다. 부동산 정책과 도시 건설 정책에 직접 영향을 줘 부동산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상임위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의원 중 주택 보유량이 가장 많은 의원 2명을 포함해 상당수가 소속돼 있다.

5. 아파트·오피스텔 신고가 대비 시세반영률 62%

[표5] 아파트·오피스텔 시세반영률 (본인, 배우자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의원수	아파트·오피스텔			차액	시세반영률 (A/B)
		개수	신고가(A)	시세(B)		
더불어민주당	102	87	37,686,754	61,681,802	23,995,048	61%
미래통합당	6	6	7,343,150	10,505,500	3,162,350	70%
정의당	1	1	202,000	440,000	238,000	46%
민생당	1	1	220,000	440,000	220,000	50%
계	110	95	45,451,904	73,067,302	27,615,398	62%

서울시 의원이 공개한 아파트·오피스텔 신고가와 실제 시세를 비교했다. 타 부동산은 상승세 주소가 나오지 않아 시세 파악이 불가능해 제외했다. 서울시 의원 110명이 소유한 아파트·오피스텔은 총 95채다. 신고가는 454억원이었지만, 시세는 730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62%에 불과했다. 이렇듯 타 부동산 역시 시세대로 신고한다면 서울시 의원이 소유한 재산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별첨]

<표> 정당별 다주택자 현황(본인, 배우자)

(단위 : 명)

구분	의원수	주택수	평균 보유수	1주택	다주택				무주택자	비중
					소계	2주택	3주택	4주택 이상		
더불어민주당	102	167	1.6	38	31	23	3	5	33	32%
미래통합당	6	17	2.8	2	3	2	-	1	1	17%
정의당	1	1	1.0	1	-	-	-	-	-	0%
민생당	1	1	1.0	1	-	-	-	-	-	0%
계	110명	186채	1.7채	42명	34명	25명	3명	6명	34명	31%

<표> 정당별 부동산 보유현황(신고전체)

(단위 : 건수)

구분	의원수	건수				비중			
		계	주택	주택 이외	토지	계	주택	주택 이외	토지
더불어민주당	102	532	214	29	289	100%	40%	6%	54%
미래통합당	6	44	17	4	23	100%	39%	9%	52%
정의당	1	2	2	-	-	100%	100%	-	-
민생당	1	5	1	-	4	100%	20%	-	80%
	110	583	234	33	316	100%	40%	6%	54%

<표> 정당별 부동산 보유현황(신고전체)

(단위 : 백만원)

구분	의원수	가액(백만원)				비중			
		계	주택	주택 이외	토지	계	주택	주택 이외	토지
더불어민주당	102	119,311	99,897	12,801	6,612	100%	84%	11%	5%
미래통합당	6	24,320	12,096	1,657	10,565	100%	50%	7%	43%
정의당	1	454	454	-	-	100%	100%	-	-
민생당	1	469	440	-	29	100%	94%	-	6%
	110	144,554	112,887	14,458	17,206	100%	78%	10%	12%

주1) 부동산 가액은 건물임대 채무를 제외한 소유 부동산가액 기준